

2025 아산 유스프러너 데모데이



2025 아산 유스프러너 데모데이





목차

인사말	10
prologue 실패 새로보기	15
01 주변을 향한 다정한 시선	16
02 안전에 대한 세심한 감각	28
03 환경을 위한 끝없는 노력	40
04 일상을 비튼 유쾌한 상상	54
epilogue 실패, 개척이라는 여정의 징검돌	66



이산
유스프러너
데모데이
세계의 FRONTIER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뒤편가면서 나가면 된다.
- 이산 영웅관 현대 창업자

ASAN
Youth Pioneer
Demoday
세계의 FRONTIER

더불어
지 않은 이야기

Maok

Best Industrial X-ray
Radio on the Market

지속 모가 웰니스
1
2



건당 결제 또는 월 구독료 방식

구분	횟수	비용
1일 컨설팅	1회	약 50만원
일주일 컨설팅	2회	100만원
한달 컨설팅	4회	200만원
장기 컨설팅	1주일에 1회	300만원/월

출처: 통... 변화

기존 컨설팅
120배 저렴한 비용으로
능



인사말

안녕하세요, 아산나눔재단입니다.

아산나눔재단은 故 아산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을 계승하여, 청년 창업가와 사회혁신가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창업자의 신념을 비전으로 삼아, 미래 세대가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재단에서는 2016년부터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아산 유스프러너(Asan Youth-Preneu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창출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매년 데모데이를 통해 도전 속에서 얻은 배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 7월 ‘개척(Frontier)’을 주제로 열린 청소년 기업가정신 축제 「2025 아산 유스프러너 데모데이」에는 약 3,000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데모데이에서는 성취 뿐만 아니라 기업가정신 실천 과정에서 마주한 실패 또한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실패 페스티벌(Fail Forward Festival)」을 선보였습니다. 축제는 학생들이 실패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발표하는 ‘천하제일 망함대회’, 교사들이 수업 속에서 실패를 다루는 ‘슬기로운 실패수업’, 그리고 올해 새롭게 선보인 ‘실패박물관’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실패박물관은 학생들이 기업가정신 팀 프로젝트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전시 형태로 재조명하며, 실패가 좌절이 아니라 다음 도전을 여는 출발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본 실패박물관 도록은 이러한 여정을 담아낸 기록입니다. 실패를 징검돌 삼아 한 걸음 더 내딛은 도전의 발자취,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움이 아닌 자부심, 멈춤이 아닌 성장으로 바뀐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뚫아가면서 나가면 된다”는 아산 정주영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을 오늘의 청소년들이 생생히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전시와 도록 발간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소중한 이야기를 작품과 인터뷰로 나눠 준 27명의 학생들, 자문을 아끼지 않으신 카이스트 실패연구소 안혜정 교수님, 그리고 집필과 편집을 도와주신 서진영 작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산나눔재단은 청소년들이 시도하고, 실패하며, 다시 도전하는 모든 발걸음을 든든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나눔재단 드림.

사계절 아뜰리
실매까지 왔었다

2025 아산 유스프러너 데모데이

2025 아산 유스프러너 데모데이



실패 박물관
Photo Zone

실패를 마주한 순간마다 새로운 힘
가득찬(Full of Power)으로 되찾아 시작합니다.

실패 박물관을 관람한 관람객은, 100% 성공을 달성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아산 유스프러너 데모데이



Prologue

실패 새로보기

지금 우리가 실패를 말하는 이유

아산 유스프러너 학생들이 진행한 기업가정신 팀 프로젝트는 모두 성공적이기만 했을까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나 실패의 경험이 있나요? 혹시 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하고 말이지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유구한 격언이 있지만 사실 실패를 달갑게 마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숭한 실패를 마주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실패를 전과는 ‘다르게’ 혹은 ‘새롭게’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2025 아산 유스프러너 데모데이 실패박물관(Fail Forward Museum)에 전시할 실패 사례를 모집한다는 소식에 기꺼이 응답한 이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사회의 문제를 따뜻하게 바라본 그들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도전했고, 그 여정에서 마주한 실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기업가정신 실천 여정에서 실패를 모른 채하거나 감추지 않고 또렷이 이야기하는 목소리, 궁금하지 않나요?

아산 유스프러너가 경험한 특별한 실패와 성장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1

주변을 향한 다정한 시선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돋보이는
프로젝트들에서 만난 시련과 실패



대전고 백지훈

대동세무고 윤예선

도촌중 김유란

창원성민여고 임지유

대흥중 정윤서

부용고 성지은

무게 분산 스트랩 장갑 : 수갑 아닙니다

대전고 백지훈



배송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어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4~5층짜리 빌라가 많다. 배송 없는 일상을 상상하기 힘든 요즈음이다. 그래서일까, 건물 계단을 수없이 오르내리는 배송 기사님들을 자주 마주하며 생각하게 되었다. 배송 기사님들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물건의 무게'라고 생각해 물건을 운반할 때 생기는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덜 무겁게, 더 빠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스트랩 위에 택배 박스를 위치시킨 다음 그 스트랩을 들어 올린다면? 이때 스트랩은 반장갑 형태로 손에 낄 수 있게 만들면 무게도 분산되고, 택배 단말기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도 가능하다. 헬스장에서 사용하는 '풀업 스트랩'이나 '데드리프트 스트랩'과 같은 손목 보조 스트랩을 참고해

무게 분산 기능을 구현하는 데는 성공했다. 그런데 배송 기사님들은 늘 시간에 쫓긴다. 무게 분산 스트랩 장갑은 끼고 벗는 일은 꽤 번거로웠다.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한 버전이 필요했다. 우리는 장갑과 스트랩을 빠르게 분리하고 연결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설계했다. 장갑에서 분리한 스트랩은 팔에 두르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때 벨크로 테이프를 사용해 탈부착과 길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데 또 다시 문제 발생. 벨크로 테이프의 접착력이 너무 강해 탈부착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배송 기사님들에게는 덜 무거운 것이 먼저일까 더 빠른 것이 먼저일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든 격이 됐다.

시도는 무죄, 실패도 무죄

스트랩의 내구성과 신축성을 고려해 라텍스 소재를 사용한 것도 걸림돌이었다. 전문 설비 없이 가공하기가 어려워 두께 조절에 실패했고, 외형도 불품없이 마무리됐다. "이거 좀 수갑 같은데?"라는 평가가 비수가 되어 날아왔다. 그렇지만 첫술에 배부르면 그게 이상한 거지. 예상치 못한 문제, 그리고 예상 밖의 좌절.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문제의 본질을 붙잡았고, 개선의 실마리를 찾았다. 나는 확신한다. 이 경험이 우리를 계속해서 도전하게 할 거란걸.



포숨포숨 : 깔창에 녹아든 눈물의 레이어

대동세무고 윤예선



작지만 확실한 불편함, 그중에서도 최악은?

우리의 관심사는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확실한 불편함'이었다. 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수요를 알아봤는데, '불쾌한 냄새'에 대한 이슈가 도드라졌다. 학교 교실과 같은 단체 생활 공간에서는 냄새 문제를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중 최악은 뭘까? 우리는 비 오는 날 젖은 신발에서 나는 냄새를 떠올렸다. 음, 생각만 해도 별로야. 흡수·탈취 기능이 있는 일회용 깔창형 패드 '포숨포숨' 개발의 시작점이다.

내 눈물까지 머금은 흡수 탈취용 일회용 깔창

물기, 땀, 습기를 빠르게 흡수하려면 어떤 재료를 써야 할까? 우리는 아기 기저귀를 떠올렸고, 폴리아크릴레이트(polyacrylate)라는 소재를 찾을 수 있었다. 신이 나서 일회용 슬리퍼를 개조해 샘플을 만들었다. 폴리아크릴레이트는 정말 빠르게 수분을 흡수하여 젤화됐다. 그게 또 문제였다. 물기는 줄었지만 끈적거림이 장난이 아니었다. 신발 종류에 따라 착용감도 들쭉날쭉했고, 전체적인 완성도도 기대에 못 미쳤다. 아, 눈물 나!

준비가 부족하면 좋은 아이디어도 왜곡될 수 있어

결과물보다 더 아쉬움이 남는 건 과정이다. 시험 기간, 방과 후 수업, 학원 등으로 팀원들의 일정을 맞추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다. 서로 조율하고 양보도 했지만 시간은 부족했고, 진도는 더뎠다. 그러다 보니 프로젝트 결과 발표에도 아쉬움이 있었다. 역할 분담이 늦어 연습이 부족했고, 서로 호흡을 잘 맞추지 못했다. 그 결과 설명이 부족해 우리 제품이 '슬리퍼 형태의 깔창 인데 '슬리퍼'로 오인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준비가 부족하면 좋은 아이디어조차 왜곡되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이 실패가 우리에게 좋은 경험으로 남기를.

첫걸음은 빼먹었지만 이건 바로 도전의 흔적 아니겠냐고.

부모님을 위한 안마 깔창: 아직은 수동입니다

도촌중 김유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부모님을 위해 블루투스로 작동할 수 있는 자동 안마 깔창을 만들고 싶었다. 그런데 자동 안마 깔창은 우리가 도달하기 힘든 고도의 기술이었다. 지압판 돌기 때문에 벨크로 부착도 어려워 여러 번 디자인을 바꿔야 했다.

엄빠, 죄송해요. 아직은 수동입니다.

수면 앱 개발기: 인터넷에 모든 게 있진 않더라

창원성민여고 임지유



청소년들의 수면 질 개선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려 했다. 수면에 도움이 되는 특정 주파수(Hz)가 있다고 해서 어떤 주파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려 했는데, 수십 건의 논문과 기사를 뒤져도 유의미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인터넷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아!



끊어진 팔찌, 성공을 위한 연결의 줄이 되기를

대흥중 정운서



늘 감사한 소방관분들께 어떻게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수공예 팔찌를 만들어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기부하기로 했다. 그런데 팔찌를 마감하는 과정에서 라이터 불에 팔찌가 타거나 끊어졌고, 한꺼번에 많이 만들기도 힘들었다. 무엇보다 팔찌는 흔한 아이템이라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웠다.

이번엔 실패했지만, 이 팔찌가 언젠가 성공을 위한 연결의 줄이 되었으면 좋겠다.

불에 타지 않는 에어팟 케이스를 만들려다 속이 탔다

부용고 성지은



산불 진화로 고생하는 소방관들의 노고를 알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었다. 상징성을 더해 불에 잘 타지 않는 아라미드 섬유로 에어팟 케이스를 만들려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재료는 해외 배송밖에 없었다. 일정 이슈로 패스. 대안은 클레이였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만큼 퀄리티가 나오지 않았다. 아쉬운 마음에 L자 파일과 펜에 소방관 스티커를 부착해 굿즈를 만들었다.

취지가 좋아도, 완성도가 아쉬우면 인정받기란 쉽지 않다. 괜히 속이 탔다.



“
올바른 뜻을 갖고 그에 어긋나지 않게
신중을 기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에게는
예기치 못한 수많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결코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걸어온
내 삶의 체험에서 얻은 신념이다.
”

-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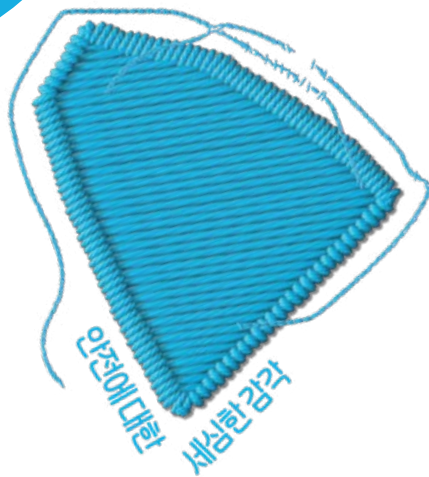




02

안전에 대한 세심한 감각

“우리 모두 안전할 수 있을까?”
사회 안전망에 대한 또렷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추진한 프로젝트들에서
맞닥뜨린 어려움



향남고 장은율

배화여고 최세현

칠성중 지윤서

한울고 김수빈

곰팡이 검사 키트 만들기: 실패가 재미있어지기까지

향남고 장은을



곰팡이 검사 키트 만들기 도전

장마철 식중독 사고가 잇따른다는 뉴스를 보게 됐다. '식중독에 걸린 후에나 균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먹기 전에 곰팡이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곰팡이 검사 키트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원리는 간단하다. 의심되는 음식을 지시약 코팅 여과지에 접촉시킨 다음 여과지의 색 변화를 관찰하는 방식이다.

신뢰도를 잃은 실험

제품화하려면 실제 곰팡이가 감지되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직접 곰팡이를 만들어야 했다. '곰팡이는 습하고 따뜻한 곳이면 금방 자라겠지' 하고 넘겨짚고는 물기를 살짝 머금은 빵을 밀폐 용기에 넣고 관찰을 시작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빵은 말라비틀어졌고, 곰팡이는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빵 대신 상하기 쉬운

생크림으로 다시 실험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제야 '곰팡이가 잘 자라는 환경'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습도, 온도, 공기의 흐름 등의 조건이 매우 중요했다. '곰팡이를 잘 키우는 것도 생각보다 까다롭네'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곰팡이 만들기 도전! 세상에, 곰팡이를 보고 이렇게 반가워하게 될 줄이야! 생크림에는 곰팡이가 정말 잘 자랐다. 너무 잘 자라 오히려 겁이 날 정도로.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곰팡이 검사 키트의 핵심 구성품이라 할 수 있는 지시약 코팅 여과지가 열에 매우 취약했다. 사람 체온 정도의 열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지시약이 변질됐고, 이로 인해 실험의 신뢰도는 떨어졌다.

실패가 아닌 실패의 끝

끝내 목표로 한 일정 내에 키트를 완성하지 못한 우리는 프로젝트 실패를 받아들여야 했다. 그렇지만 우리 팀원들은 공식적으로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 지금까지도 지시약을 바꿔보기도 하고, 여과지를 스펀지로 교체하는 등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뭔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자꾸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그러면서 새로운 걸 배우고.. 맙소사! 이 과정에서 꽤감까지 알아 버렸다. 또, 실패의 경험이 반복될수록 그만큼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기대감도 생겼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실패가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재미있는 경험으로 다가오는 거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시도한다.



서로를 탓하지 않으면 시행착오도 도전의 에너지가 된다

배화여고 최세현



불시의 습격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늦은 귀갓길, 좁은 골목, 캄캄한 밤을 홀로 걸으며 두려움을 느낀 경험이 있다. 뉴스에서 접하는 사건 사고가 남의 얘기로만 들리지 않는다. 항상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를 호신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 우리는 휴대전화 케이스에 탈부착할 수 있는 키링 액세서리 형태의 호신 장비를 구상했다. SAFE:ON. 너클, 호신용 스프레이, 몰래카메라 감지 필름, 그리고 경음기까지 탑재한 모듈형 호신 장비이자 귀여운 폰케이스 부착형 액세서리. 휴대성과 즉시성이라는 휴대전화의 장점을 액세서리에도 접목한 SAFE:ON은 불시의 습격에 대비하는 준비된 일상을 의미한다.

예산 부족, 구조적 문제, 그리고 부상 투혼

호신 기능이 있는 부품들은 우리가 가진 예산을 넘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시중에서 우리의 제작 사양에 맞는 부품을 구하는 것도 어려웠다. 대안으로 찾은 건 3D 프린팅 서비스. 정말 운 좋게 예산 내에서 시도할 수 있는 제작 업체도 만났다. 제작 과정도 산 넘어 산. 키링 인형 안에 경음기를 탑재하려 했는데 우리가 생각한 구조는 실현하기가 어려웠다. 무엇보다 경음기 자체가 인형보다 컸다. 더 큰 인형을 사용하면 휴대성이 떨어지고, 예산이 부족하니 인형을 새로 구매할 수도 없었다. 포기에는 없다! 우리는 경음기를 분해해 필요한 부품만 꺼내 사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플라스틱 재질의 경음기 외장이 얼마나 단단하던지 몇 번이나 손가락을 베었고, 한번은 칼날 파편이 튀어 이마를 강타하기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야말로 피 흘린 부상 투혼!

세상엔 기종이 너무도 많아

갖은 노력 끝에 완성한 SAFE:ON. 그런데 아쉽게도 키링, 너클, 필름, 경음기까지 애초에 계획했던 아이템들을 모두 다 부착하면 카메라 렌즈를 가렸다. 무엇보다 우리의 머리를 '당' 하고 울린 건 "이거 아이폰 케이스밖에 없어? 난 갤럭시인데!" 하는 목소리. 그렇다. 그리고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기종은 엄청나게 다양하다는 걸 고려하지 못했다. 완성은 했지만 완벽하진 않았다는 걸 인정해야 하겠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 시행착오 속에서도 서로 탓하지 않았다. 실패 속에서도 격려했고 함께 목표를 향해 달려갔다. 그런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충간소음도, 다툼도 막고 싶었지만 판로만 막힘

칠성중 지윤서



충간소음으로 이웃 간 다툼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끊이지 않는다. 우리는 방음 소재를 덧댄 양말을 만들기로 했다. 처음에는 미끄럼방지 고무판과 흡음재를 양말 안에 넣으려 했지만 재료가 예상보다 크고 두꺼워 잘 들어가지 않았다. 스펀지로 대체해 보았지만 양말을 신고 벗을 때마다 이리저리 밀려 조그맣게 잘라 발꿈치에 붙이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꿈은 원대했지만, 결국 방음 효과는 미미했고 구매하겠다는 사람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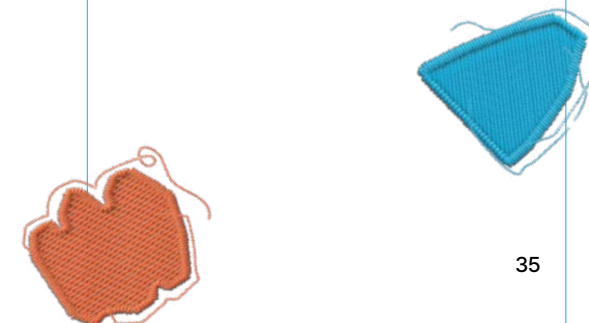
펜촉을 열진 못했지만 배움의 기회는 열었다

한울고 김수빈



ADHD 치료제가 집중력 향상에 좋다는 가짜 뉴스로 일부 학생들이 약물을 오용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건강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일 방법을 고민하다가 25분 집중, 10분 휴식을 반복하는 뽀모도로 기법을 떠올리게 됐다. 그리고 이를 활용해 버튼을 누르면 펜촉이 열리고 25분 집중 후 불빛으로 휴식 시간을 알려주는 스마트 펜을 구상했다. 하지만 기술적 한계로 3D펜에 버튼과 불빛을 구현하는 데 그쳤다.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따지지 못했던 것. 결국 펜촉을 열진 못했지만 배움의 기회는 열었다고 믿는다.





“

모험이 없으면 큰 발전도 없다.
세상일에는 공짜로 얻어지는 성과란 절대로 없다.
보다 큰 발전을 희망한 모험에는
또 그만큼의 대가도 치러야 한다.

”

-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자



환경을 위한 끝없는 노력

“지구가 아프면 우리도 아프다”
기후와 환경을 생각한
물과 책물 프로젝트의 시작

발곡고 최준혁

클링 손수건과 파우더 스프레이: 우리가 이걸 왜 만들었더라?

발곡고 최준혁

물과 책물 프로젝트의 시작은 2019년 11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2019 서울환경영화제’에서였다. 그날, 나는 ‘물과 책물’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이 영화는 물과 책의 관계를 다룬다. 물은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책은 우리의 지식을 전달하는 매체다. 물과 책은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영화를 보며, 나는 물과 책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물과 책물’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2019년 11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2019 서울환경영화제’에서였다. 그날, 나는 ‘물과 책물’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이 영화는 물과 책의 관계를 다룬다. 물은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책은 우리의 지식을 전달하는 매체다. 물과 책은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영화를 보며, 나는 물과 책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물과 책물’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2019년 11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2019 서울환경영화제’에서였다. 그날, 나는 ‘물과 책물’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이 영화는 물과 책의 관계를 다룬다. 물은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책은 우리의 지식을 전달하는 매체다. 물과 책은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영화를 보며, 나는 물과 책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물과 책물’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늘을 만들고 그림자가 됐다

서인천고 황인호 서자우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회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집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회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집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회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집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회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집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회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집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회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집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계획은 빗나갔지만 포기하진 않았어

하문중 나찬수

나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회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집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나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회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집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나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회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집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나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회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집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나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회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집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나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회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집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물 새는 화분: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서울디자인고 이서영

‘물 새는 화분’은 2019년 11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2019 서울환경영화제’에서였다. 그날, 나는 ‘물과 책물’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이 영화는 물과 책의 관계를 다룬다. 물은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책은 우리의 지식을 전달하는 매체다. 물과 책은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영화를 보며, 나는 물과 책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물과 책물’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물 새는 화분’은 2019년 11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2019 서울환경영화제’에서였다. 그날, 나는 ‘물과 책물’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이 영화는 물과 책의 관계를 다룬다. 물은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책은 우리의 지식을 전달하는 매체다. 물과 책은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영화를 보며, 나는 물과 책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물과 책물’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물 새는 화분’은 2019년 11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2019 서울환경영화제’에서였다. 그날, 나는 ‘물과 책물’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이 영화는 물과 책의 관계를 다룬다. 물은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책은 우리의 지식을 전달하는 매체다. 물과 책은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영화를 보며, 나는 물과 책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물과 책물’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영투영이 나를 울고 웃게 해

구리여중 이하은

나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회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집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나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회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집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나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회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집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나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회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집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나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회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집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나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회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집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백백, 성공의 게이트는 열지 못했다

서울디자인고 김명찬

나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회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집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나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회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집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나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회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집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나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회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집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나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회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집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나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회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집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친환경 플라

03

환경을 위한 끝없는 노력

“지구가 아프면 우리도 앓아요”
기후와 환경을 생각한
문제 해결 프로젝트들 속에서
마주한 실패



발곡고 최준혁

서울디지털고 이서영

서인천고 황인호 서지우

휘문중 나찬수

구리여중 이하윤

서울디지털고 김영찬

대흥중 김민건

쿨링 손수건과 파우더 스프레이: 우리가 이걸 왜 만들었더라?

발곡고 최준혁



멸종위기종도 알리고, 가치소비도 하고

어릴 적부터 멸종위기종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팀원들은 함께 의미 있는 제품을 만들어 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면서도 실용적인 걸 생각하다 이야기 나온 것은 쿨링 손수건과 파우더 스프레이다. 많이 알리려면 일상적으로 쓰임이 좋아야 할 테고,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이고,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나온 결론이다. 더불어 이왕이면 '친환경적인 가치'를 품은 쓸모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었다. 그리하여 제품 디자인에 멸종위기종 이미지를 활용하면 멸종위기종도 알리면서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쿨링 티슈를 대체하는 가치소비 제품을 만들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완벽한 레시피를 찾아서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겠지만 우리는 시판 제품을 모방하지 않고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 직접 개발하기로 했다. 광목천부터 다시마 원단 등 여러 소재를 사용해 손수건 샘플을 만들었고, 로즈메리 추출물부터 베이킹소다, 알로에베라 워터 등 다양한 성분을 조합하여 스프레이를 실험했다. 확실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운동장을 4바퀴씩 뒀 후 다양한 피부 타입에 테스트를 진행했다. 완벽한 레시피를 찾아 분투했는데 쿨링 손수건은 기존 쿨링 티슈 대비 시원하지 않았고, 파우더 스프레이는 피부가 빨개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자신 있게 써보라고 권하기 힘든 결과였다.

그런데 왜 쿨링 손수건과 파우더 스프레이야?

진짜 문제는 완성도가 아니었다. 멸종위기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방법으로 쿨링 손수건과 파우더 스프레이가 최선이었을까? 이것으로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소비자가 원하는 것 또는 기대하는 걸 먼저 알아봐야 하지 않았을까? 뒤늦게 우리는 더 일상적인 아이템인 파우치에 멸종위기종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제품의 완성도에 집중하느라 우리가 왜 이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를 잊고 있었다.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으니 이 프로젝트는 실패로 분류되겠지만 우리는 정말 값진 경험을 했다. 본질에 맞는 방향성을 잘 찾아야 온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말이다.

물 새는 화분: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서울디지털대학교 이서영



'재활용'에 꽂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동시에 결국 버리게 되는 것. 바로 교과서. '재활용'에 꽂혀 있었던 우리는 버려지는 교과서의 양이 상당하다는 걸 포착하고 폐교과서를 커팅해 실용적이면서도 개성 넘치는 '나만의 책갈피'를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커팅하고 남은 종이가 환경오염을 시키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는 피드백을 받았다.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만 기쁘게 생각했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됐다.

완성, 그러나 완벽하지 않은

힘이 빠지고 괜히 막 우울해졌다. 그렇지만 책갈피 제작 자체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책갈피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다시 활용할 수는 없을까?' 우리는 추가로 종이 화분을 제작했다. 종이를 물에 불리면 겉쪽한 종이 죽이 된다. 이 종이 죽으로 모양을 잡아 말리면 화분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만큼 종이 죽에 점성이 생기지 않아 화분 형태를 잡기가 어려웠다. 마르는 과정에서 군데군데 갈라지기도 하고 빈틈도 생겼다. 결국 구멍 송송 뚫린 물 새는 화분이 되어버렸다.

자랑하고 싶은 실패작

시도는 좋았지만 완벽하게 만들진 못했다. 시간이 더 있었다면 종이 죽 반죽 비율을 다양하게 실험해 완성도 높은 화분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그렇더라도 내게는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실패다. 도전 과정에서 피드백을 받으며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는데,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도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중요한 건 나와 팀원들이 이 잘못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는 점이다. 지금 당장 모든 게 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완벽하지 않다는 것,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은 아직 더 발전할 기회가 있다는 뜻일 테니까.

그늘을 만들고 그림자가 됐다

서인천고 황인호 서지우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주제로 차량용 햇빛 가리개를 제작했다. 폐우산 업사이클링 제품이다. 우산살이 생각보다 훨씬 단단해 정밀하게 자르기 어려웠고, 우산 원단은 쉽게 주름졌다. 완성된 제품은 햇빛을 가리는 기능은 잘 구현됐지만 디자인이 너무 단조로워 사람들의 호감을 끌지는 못했다. 폐우산으로 메시지는 펼치지 못한 것이다.

품고 있는 뜻이 좋아도 효과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면 본질까지 외면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계획은 빗나갔지만 포기하진 않았어

휘문중 나찬수



우리는 플라스틱을 최대한으로 재활용하면서도 실용적인 수납장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재활용 플라스틱 판재를 직접 만들 수 있다면 좋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그렇다고 재활용 플라스틱 판재를 살 순 없잖아?! 알아는 봤지. 근데 판매처도 드물고, 무엇보다 너무 비쌌다. 결국 우리가 택한 재료는 종이상자.

처음 구상과는 많이 달라졌다. 그러니 실패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병뚜껑이 나를 울고 웃게 해

구리여중 이하운



플라스틱 병뚜껑을 재활용해 위트 넘치는 MBTI 키팅 만들기에 도전했다. 다리미로 열을 가한 다음 알파벳 쿠키틀로 눌러 병뚜껑을 재단했지만 깔끔하게 잘리지 않았다. 방향을 틀어 녹인 병뚜껑에 열감지 색소를 섞어 반지 큐빅을 만들었다. 이번엔 색소가 마르면서 얼룩이 생겨 실패.

우리엔겐 소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뜻대로 되지 않아 아쉽기도 했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엔겐 즐거운 놀이이기도 했다.

실패했지만 괜찮아, 재밌었으니까!



빼빅, 성공의 게이트는 열지 못했다

서울디지털고 김영찬



무심코 주위를 둘러보는데 버려진 인형과 교통카드가 눈에 들어왔다. 둘 다 우리가 쉽게 잃어버리는 물건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아까운 마음에 이를 활용한 공예 DIY 키트를 개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교통카드의 활용도가 낮았고, 실험을 반복할수록 기술적인 한계가 뚜렷해졌다. 키트는 실용화하지 못했고, 우리의 도전 역시 성공이라는 게이트를 통과할 수 없었다. 다음을 기약해본다.

친환경 탈취제, 플라스틱에 갇히다

대흥중 김민건



친환경 탈취제를 만들었다. 다 좋았지만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완성했다는 점이 옥에 티. 친환경이라는 주제 의식을 100% 구현하지 못한 게 아쉬움으로 남았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았으면 아무 경험도 얻을 수 없었을 테니까 괜찮다.

성공만 경험인가, 실패도 경험이다.

“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낙관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

-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자



별지 못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김영찬

친환경 활취세,
플라스틱에 갇히다

대흥중 김민빈

2025 마산 유스프렌드네트워크



일상을 비튼
유쾌한 상상

"마루리우가 몸집을 빼라"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작가 일행들
포스트작가들에서 다루한 삶에

상대고 송지훈
상대고 오규현
신원중 김태준 이규원 김동현 김민준
한교중 이규상
대구농림대 이규상 조주원
매곡고 김서민
대구농림대 이규상 박상현
문예중 한서민
해안고 오민재

분리 없는 분리:
그런데 이제 자위지도 않는...

상대고 송지훈

설계는 인공지능에 기댈 수 있지만
실행은 우리 몫

신원중 김태준 이규원 김동현 김민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스프링?

한교중 이규상

화분 받침대 손잡이,
고객의 손도 잡고 싶다

대구농림대

식물상을 위한 화분 받침대, 손잡이를 구상했다. 기존 화분 받침대는 화분을 받치는 역할만 했기 때문에 손잡이를 달지 않았고, 고객들이 화분을 받칠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해결하고자 손잡이를 달았다. 또한, 손잡이를 만들면서 손잡이 치수, 치수, 길이, 방향, 방향을 고려해야 했다. 그렇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므로 더 고민한다.

한상은 현재도 식물상만 가동해 두지 않는다.



실버 박물관
Real Forward Museum

04

일상을 비튼 유쾌한 상상

“하루하루가 즐겁길 바라”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재기 발랄한 프로젝트들에서
마주한 실패



삼괴고 송치훈

성심여고 오규빈

신림중 김태준 이규원 김동현 강민준

판교중 이규상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조주훈

배화여고 양서윤

대구농업마이스터고 변성현

은혜중 한서연

처인고 조민택

분진 없는 분필: 그런데 이제 지워지지도 않는...

삼괴고 송치훈



흘날리는 분필 가루 속에서

1교시, 2교시, 3교시... 수업이 이어질수록 교실 공기가 무거워지는 게 꼭 기분 탓만은 아닐지도. 쉬는 시간이면 다음 수업 준비로 부산한 와중에 분필 분진이 교실을 더욱 탁하게 만든다. 가루가 날리지 않는 분필을 만들 수는 없을까? 립스틱처럼 가루가 날리지 않으면서도 발색이 잘 되는 분필이 있다면?

라이크 립스틱 like LIPSTICK

양초의 주재료인 파라핀을 사용하여 분필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잘만 하면 가루도 흘날리지 않고 '깹깹' 칠판 긁는 소리 없이 필기감도 부드러운 칠판이 완성될 거란 기대감으로 가득했는데, 과정은 좌충우돌이었다. 주재료인 파라핀을 확보하고자 양초를 녹이는 과정에서 층 전체에 파라핀 냄새를 퍼뜨리는가 하면, 파라핀을 식히려 창틀에 올려두었는데 그만 창틀이 녹아버렸다. (선생님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신다.)

실패로 쌓은 우정

완성된 우리의 분필! 기대를 가득 안고 칠판에 써 봤다. "오~ 오~" 하다가 이내 침묵.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 파라핀 분필은 잘 지워지지 않았다. 그 순간에는 슬프고 절망스럽기까지 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흘러 그런 생각이 들었다. 팀원들이 없었다면 여기까지라도 해낼 수 있었을까? 나 혼자였다면 금방 포기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함께였기에 서로 의지하며, 더 책임감 있게 프로젝트를 이어갈 수 있었다. 어색하기만 했던 팀원들끼리 서먹함을 이겨내며 최선을 다한 결과는 실패였지만 실패하고도 소중한 인연을 얻었으니 완전 이득 아냐? 지금은 넘어졌지만 우리 결국 일어날 거다. 함께!

사계절 이불: 실패까지 덮었다

성심여고 오규빈



꼭 자려고 눕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가정신에 대해 배우고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일상의 불편함을 기회로 삼는 아이템'을 찾아보려고 했을 때 번뜩인 아이디어는 이불이다. 이불 덮고 누워서 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가만히 누워만 있기엔 좀 불편하다. 이불을 덮으면 손발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여름 이불은 가볍기라도 하지 겨울 이불은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계절이 바뀌어도 무난하게 덮을 수 있고, 활동성도 보장해 주는 '사계절 이불'이 있으면 좋겠다.

이불의 변신은 무죄

우리 팀은 이불을 덮을 때 발생하는 활동성 제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팔과 머리를 이불 밖으로 뺄 수 있는 구멍을 뚫었다. 사계절용이니만큼 아주 더울 땐 냉각팩, 아주 추울 땐 온열팩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도 만들었다. 과정 자체가 너무 재밌었다.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더 많은 기능을 넣고 싶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도 쑥쑥 자랄 테고, 더 완성도 높은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시행착오, 다음을 위한 리허설

그런데 말입니다... 이불에 구멍을 너무 크게 뚫고, 팩 주머니 위치도 잘못 잡아 이불을 덮었을 때 전체적인 균형이 맞지 않았다. 바느질에 서툴러 마감이 깔끔하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 그야말로 시행착오의 연속. 그렇게 우리의 사계절 이불 만들기 도전은 실패까지 함께 덮고 말았다. **하지만 우리가 덮은 건 실패만은 아니다. 도전, 협력, 소통, 그리고 빅웃음. 비웃음 아닌 빅웃음을 남긴 우리의 실패는 분명 다음을 위한 리허설이 될 거야.**

설계는 인공지능에 기댈 수 있지만 실행은 우리 몫

신림중 김태준 이규원 김동현 강민준



샤워를 하다가 종종 물 온도가 갑자기 달라져 “아, 뭐야!” 하고 놀랄 때가 있다. 우리는 물 온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샤워기를 만들어 보자고 했다. 제품명도 정했다. Temperature.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프로토타입 설계도는 빠르게 작성할 수 있었다. 이제 부품들을 조립만 하면 끝인데 부품을 배송받고 멘탈이 바사삭. 당연히 부품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 생각했던 연결 케이블은 미포함이었고, 온도 감지 센서와 LED는 우리의 설계와 크기가 달랐다.

결국 프로토타입을 완성하지 못했다.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주문한 우리 잘못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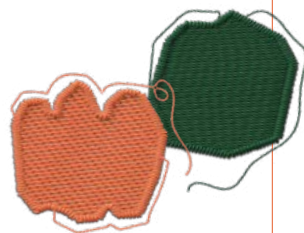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스프링?

판교중 이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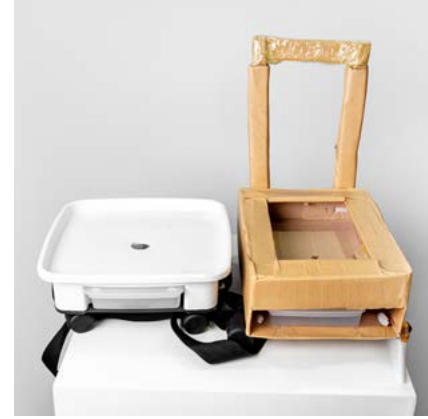
공부하는 동안 운동도 가능한 기구를 만들어 학업에 치인 청소년들에게 시간과 건강을 선물하고 싶었다. 가스 스프링이 연결된 슬리퍼를 누르는 방식이었지만 스프링이 자꾸 옆으로 꺾여 자세가 불안정했다. 부품 연결도 쉽지 않았고, 미끄럼 방지용 고무판을 붙였는데 기구는 계속 밀려 벽면에 기대어 써야 했다.

결과적으로 사용 환경에 맞는 이상적인 형태를 구현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아직 완전한 실패는 아니다. 중요한 건 역시 꺾이지 않는 스프링... 아니, 마음이니까.



화분 받침대 손잡이, 고객의 손도 잡고 싶다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조주훈



식집사를 위한 바퀴 달린 화분 받침대를 구상했다. 이동이 편한 사용자 중심의 제품을 고민했고, 특히 손잡이 디자인에 많은 공을 들였다. 처음엔 휴대폰 충전기를 손잡이로 써 봤는데 보기에 좋지 않았고, 고정하기도 힘들었다. 다음엔 가방끈으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손잡이를 만들었지만 끈이 자꾸 꼬여 실용성이 떨어졌다. 최종 버전은 폐박스로 형태를 잡아 유색 테이프로 마감했다.

완성은 했지만 상품성은 기대에 못 미쳤다. 손잡이, 네가 뭔데 날 힘들게 해!

무소음 알람 시계, 아직은 멈춰 있지만

배화여고 양서윤



작은 이어폰 사용으로 청각 능력이 점점 나빠지는 데서 착안해 독서실 같은 조용한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무소음 알람 시계를 고안했다. 성공한다면 청각장애인들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두이노 보드를 사용해 알람 설정 기능을 구현하려 했지만 예상대로 되지 않았다.

필수 기능인데 뺄 수도 없고... 하지만 발명은 우연한 실패에서 나온다잖아? 여전히 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언젠가는.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기능과 디자인 사이에서 빛나지 못한 야광 케이스

대구농업마이스터고 변성현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보이는 에어팟 케이스를 만들고 싶었다. 이왕이면 케이스를 씌운 상태에서 뒷면 페어링 버튼이 잘 눌러지게 하고 싶었다. 우선 버튼 문제는 케이스에 구멍을 뚫어 해결해 보려 했는데 두께 때문에 손가락이 닿지 않았다. 사포로 갈아낼까도 했지만 괜히 지저분해질 것 같았다. 그리고 캐릭터 스티커 위에 야광 스티커를 덧붙였는데 오히려 캐릭터는 묻히고 야광 효과도 떨어졌다.

기능과 디자인 사이 균형을 찾지 못하고 욕심만 낸 것 같다.

새로운 도전에는 용기가 필요해

은혜중 한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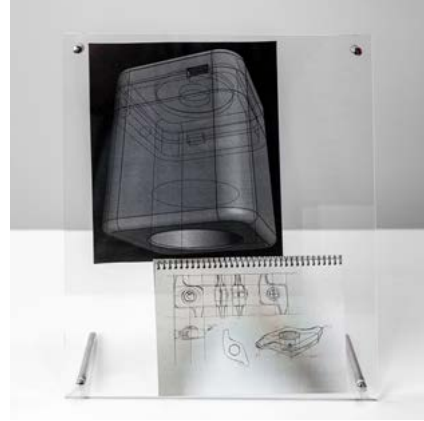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돕는 시계를 만들고 싶었다. 그런데 한국어에 서툰 친구, 아이디어를 내긴 하지만 소극적인 친구, 실상 프로젝트에 큰 관심이 없는 친구,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머뭇거리는 나까지, 한 배를 탄 우리 팀은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도 생각과 의견을 나눌 수 없다면 도전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의 새로운 여정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용기를 내어 보자! 일단 나부터!

실패해도 행복해, 배배 꼬이지만 않으면

처인고 조민택



HDMI 케이블 선은 잘 꼬여 불편할 때가 많다. 줄자처럼 돌돌 감기는 릴 타입 케이스가 얼마나 편할까 싶었다. 하지만 구조와 재료를 구체화하지 못한 채 프로젝트가 종료됐다. 완성하진 못했지만 진행하는 동안 꽤 즐거웠고, 잠깐잠깐 행복감도 느꼈다.

아마도 이 경험은 다음 도전을 위한 동력이 되지 않을까.



“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순간 실수했다고 해서 그 실수 때문에
그때까지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 어떤 실수보다 치명적인
실수는 일을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

-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자

실패, 개척이라는 여정의 징검돌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뚫아가면서 나가면 된다.”

실패박물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데모데이에서 ‘비전 스테이지’에 올라 멋지게 피칭 하진 못했지만, 아산 유스프러너 기업가정신 팀 프로젝트에 참여한 친구들은 모두가 각자 정말 다양한 관심사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 여정엔 술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잠시 좌절하기도 하고, 짙은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죠. 그런데 어떤 공통점이 느껴지지 않았나요? 실패를 고백하는 문장 속에 ‘그런데’ ‘그러나’와 같은 전환의 접속 부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시행착오의 과정을 곱씹어 실패의 의미를 전환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이야기 끝에는 다음 단계를 향한 묘한 기대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막다른 길, 누군가는 멈추는 지점에서 기업가(Entrepreneur)들은 다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는 이 미래의 유망한 기업가들이 수많은 시련과 실패를 맞닥뜨리고서도 멈추지 않았던 그 마음들을 기억할 거예요. 기꺼이 실패담을 나누어 준 아산 유스프러너 친구들에게, 그리고 실패라 쓰고 ‘개척(Frontier)’이라 읽게 되는 그들의 기록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어제의 실패는 우리가 걸어갈 개척의 여정에서 단단한 징검돌이 되어줄 테니까요.



개척 메시지 월

〈2025 아산 유스프러너 데모데이〉 실패박물관 전시는 기업가정신 팀 프로젝트에서의 실패 사례를 담아냈지만, 사례 모집 과정에서 일상에서 겪은 다양한 실패 에피소드들도 함께 물었습니다. 그 안에는 술한 도전과 좌절 속에도 유쾌하고 빛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첫사랑 고백 실패담처럼요.

학원에서 이상형을 만났다.

옆자리에 앉았다가 얼굴이 빨개져 고백도 하기 전에 좋아하는 걸 들키고 말았는데,
운 좋게 사탕 교환을 하며 연락도 주고받게 됐다. 내가 모솔이어서 그랬을까?
대화는 갈수록 단답형으로. 용기 내 크리스마스에 고백했지만 슬프게도 차였다.
첫 고백 대 실패! 어렵네, 어려워. 그나저나 또다시 누군가에게 고백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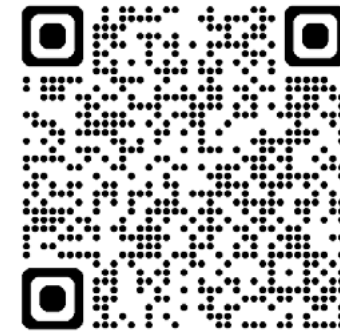
(오늘의 BGM, TWS가 부릅니다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 남성고등학교 서덕우

여러분의 실패 이야기를 함께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실패의 기억을 품고 있나요?
도록을 보며 떠올리게 된 나의 실패 이야기도 좋고요,
전시 사례들이 건넨 실패를 통해 느낀 점,
또는 공감과 응원의 한마디도 좋아요.

QR 코드에 접속하여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 주세요.
실패 박물관 마지막 한 페이지는 여러분의 이야기로 완성됩니다!



“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낙관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

-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자

2025 아산 유스프러너 데모데이







Asan Youth Preneur Demoday

: 개척 FRONTIER

아산나눔재단



아산나눔재단

아산나눔재단은 아산 정주영 현대 창업자의 서거 10주기를 기념해 2011년 10월 출범한 공익재단 입니다.

우리 사회에 아산의 창조 정신을 계승한 '기업가정신(起業家精神; Entrepreneurship)' 확산을 위해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방식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이끄는 사람과 기관을 양성해 사회발전을 이루고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를 수 있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청년 창업가와 사회혁신가가 도전하고, 성장하고, 나누는 기반을 만들어 갑니다.

이를 위해 기업가정신 교육 사업, 청년창업 지원 사업, 사회혁신 지원 사업, 혁신생태계 조성 사업 등을 다양하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아산나눔재단	www.asan-nanum.org
	MARU	www.maru.org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http://startup.asan-nanum.org
	아산 기업가정신 스쿨	www.asanschool.org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	www.asan-aer.org
블로그	아산나눔재단	http://blog.naver.com/asan-nanum
인스타그램	아산나눔재단	Instagram.com/asannanum_official
	MARU	Instagram.com/maru180_360
페이스북	아산나눔재단	facebook.com/TheAsanNanum
	MARU	facebook.com/MARU180ANF
유튜브	아산나눔재단	https://youtube.com/asannanumfoundation
링크드인	아산나눔재단	linkedin.com/company/asan-nanum-foundation



A 아산나눔재단

